



Contents March 2022 vol. 83

22



04

격려사

임혜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05

이임사

임효숙 |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제13대 회장

06

취임사

주성진 |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제14대 회장

07

2022년 연간일정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KWSE 소식지

발행인 : 주성진
편집위원장 : 김희연
편집위원 : 김가영, 배치혜, 류승미, 임은경, 조은위
사무국 : 김혜선, 민의정, 변애란, 송혜진, 최한나
발행처 :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KAIST 부설 나노융합기술원 E19 801호
전화 : 042-863-8310~6 팩스 : 042-863-8313 E-mail : kwse@kwse.or.kr
홈페이지 : www.kwse.or.kr
디자인 : 디자인에스

28



08

수상소감

김민진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문애리 |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10

사업소개

· 국제 여성과학기술인 단체협력 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여성과학기술인 과학탐구교실 사업 (대전광역시)

12

제14대 임원진 및 위원회 소개

30주년 기념사업 특별위원회 / 회원활동위원회 /
교육학술위원회 / 국제네트워크위원회 / 기획운영위원회 /
대외협력위원회 / 정보위원회 / 정책위원회 /
홍보편집위원회 / 총무단 / 감사

34



22

여성과학기술인 Table Talk

·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이끄는 4명의 여성과학기술인

26

2021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 설문 결과

28

특별기고

지구를 둘러싼 우주 쓰레기의 위험에 대비하라

글 : 최은정 | 한국천문연구원 실장

32

과학외교 : KWSE人 세계속으로

· Smart Sister 총괄워크숍 개최
· 한미과학기술대회(UKC 2021), KWSE-KWISE Joint Forum 개최
· INWES 웨비나 개최 'Policy for Women in STEM'

35



34

KWSE 뉴스

· 제29회 정기총회 및 융합워크숍 개최
· 과학탐구교실 우수소감문 시상식 개최
· 지부소식 - 부산울산경남 지부총회 및 융합워크숍 개최
· 과학탐구교실 강연자 워크숍 개최
· 2021 제5회 이사회 개최
· 2022 제1회 이사회 개최
· 2021 자문회의 개최

38

KWSE 회원동정

· 수상
· 인사
· 'KWSE 회원가입을 환영합니다.'
· KWSE 사무국 소개

격려사

연구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여성과학기술인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혜숙입니다.

1993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과학기술인 단체인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는 그간 활발한 활동을 통해 국제 여성과학기술인 활동을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여성과학기술인의 권익 신장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2022년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신 제14대 주성진 회장님과 임원진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간 계속된 팬데믹 상황은 경제와 산업, 나아가 우리의 일상까지 많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많은 분야가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으며, 우리는 과학기술 혁신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성공여부는 미래 신산업을 이끌어 나갈 우수 인재의 확보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인재 양성은 미래 준비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수 여성과학기술인의 역량을 증진하여 개인의 삶을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돕고, 활용을 확대하는 것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을 선도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수적 사항입니다.

정부는 2002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래 여성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성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채용과 재직을 촉진하는 적극적 조치를 법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복귀와 출산·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 지원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AI, SW, 탄소중립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의 여성 전문인력 양성, 지역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글로벌 협력 강화 등 여성과학기술인 전주기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앞으로도 여성과학기술인 여러분이 사회 각 분야에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여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연구현장의 일·생활 균형과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와 문화를 만드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역량 강화와 성장지원을 위해 국제여성과학기술인 융합학술대회(BIEN), 차세대 국제 여성과학기술인 캠프(YWS Camp), 해외 여성과학기술인과의 웨비나 등 다양한 국제 활동을 활발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여성과학기술인이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계의 핵심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성진 회장님과 임원진의 활동에 격려의 말씀을 전하며,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원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임사

코로나 19로 인한 단절의 시대를 통과하면서, 인간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닫습니다.



임호숙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제13대 회장

- 現 과기정통부 직할기관(교육인력양성형) 평가위원장
- 現 Board Member of International Charters Space & Major Disasters
- 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
- 前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센터장
- 前 한국지리정보학회 부회장
- 前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사랑하는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원여러분!

저는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13대 회장직을 지난 12월 31일부로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완주는 함께 수고했던 13대 임원진들과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서 이루어졌음을 알고 있기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회장후보로서 준비를 시작했던 2019년부터 몇 가지 이루고 싶었던 일들이 있었는데, 제 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0년 1월부터 휘몰아친 코로나 19 확산으로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행사를 주관하면서 앞으로 나아간 거 같습니다. 2년을 그렇게 보내면서 때론 이게 뭐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게 바로 새로운 세상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결코 되돌아 갈 수 없는 방향으로 세계가 변화하고 있고, 우리는 그걸 연구현장에서 잘 받아들이어서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단절의 시대를 통과하면서, 인간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닫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소홀해진 만남으로 관계의 끈은 느슨해졌고, 개인이 홀로 져야하는 인생의 무게는 더욱 가중된 듯한 느낌입니다. 특히 소통과 공감으로 인해서 힘을 얻는 여성과학기술인들에게는 매우 힘든 시간입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연구현장을 지켜야 하는 젊은 여성과학기술인들에게는 이 시기가 정말로 가혹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우연히 보게 된 '진격의 할매'란 예능은 친숙한 국민할머니 트리오가 사연자들과 만나서 인생의 고민 상담을 해 주며 따뜻한 위로와 공감을 주는

토크 프로그램입니다. 밤낮 없이 촬영하는 연기현장에서 살아가면서 자녀를 키우고, 연기자로서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그들이라서 뭔가 비법이 있지 않을까하는 호기심에서 더 몰두해서 지켜봤습니다. 한 중년의 여자 연기자에게 하는 조언에 의하면 늙을 때까지 꾸준히 연기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때론 자기와 맞지 않을 것 같은 배역일지라도 그걸 통해서 자기만의 연기 빛깔을 찾아갈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었습니다. 분야는 다르지만 끝까지 자신의 영역을 지켜온 사람들만의 품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살아오면서 매우 힘들었던 것은 "이렇게 힘든 시간이 언제 끝나지?" 하는 거였습니다. 목표지향성이 강하게 길들여온 터라 당초 예상했던 바와 다르게 시간이 흘러갈 때에 매우 힘들어 했던 거 같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잘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결국엔 승리하는 거 같습니다. 조바심내지 않고 긴 호흡으로 연구현장을 지키면서, 코로나 19로 인해 모든 게 달라지고 있는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새로이 임기를 시작하신 제14대 주성진 회장님과 임원진들께도 큰 기대와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가 비상하는 임기가 되길 바랍니다. 임기 내에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의 30주년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서 회원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 번 결집하면서 새로운 30년을 꿈꾸는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려울수록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설렘과 사명감으로 푹푹 뭉쳐서 시작했던 연구 현장임을 다시 되새기면서, 장거리 마라톤 같은 삶속에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오더라도 서로 격려하며 함께 달려가는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원으로 인해 완주의 기쁨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에 동행해주시며 깊이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들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취임사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는
대한민국 여성과학기술의 역사이며, 세계 여성과학기술의 학술교류 장입니다.



주성진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제14대 회장

- 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위원회 위원
- 現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이사
- 現 교육부 대학양성평등 평가위원회 위원
- 現 대전광역시 성과평가위원회, 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사랑하는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원 여러분!

새해의 희망과 회원들의 기대 속에 힘찬 출발을 약속한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제14대 회장 주성진입니다.

탄소중립, 기후변화 그리고 감염병 등 과학기술계의 문제가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예측하기 어려운 많은 변화가 시시때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힘이 인류사회를 거듭 발전시켜왔듯이 앞으로도 과학기술은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수많은 어려움에 해결책으로 답할 것이며, 나아가 우리 모두가 희망하는 환경을 만들고, 꿈을 실현시켜 주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지만, 그 과정에서 또한 값진 성과를 창출한 주역이 바로 과학기술계이며, 그 중심에 우리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원 여러분이 계셔서 자랑스럽습니다.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는 각 분야에 계신 회원들 간 국내·외 협력을 통해 전문지식을 교류하고 연구 역량을 높이는 단체입니다. KWSE는 신진 여성 과학자들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고 현직 여성과학자들의 성과를 높이도록 돕는 든든한 협력의 장이자, 선배들의 노하우와 열정이 공유되는 멋진 무대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사회는 신정부 출범과 함께 "제5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현장에 계시는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여성과학기술인을 양성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입안되도록 노력하여야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고, 국제 여성과학기술인 활동을 이끌어 온 정신을 이어 발전을 거듭하는 KWSE를 만들어나가는 데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각 전문분야에서 앞찬 계획과 함께 앞을 향해 나아가는 회원 여러분의 힘찬 도전을 응원하며, 30년 역사와 함께 도약을 준비하는 과정에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는 회원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KWSE 연간일정

상반기

하반기

| | |
|---|--|
| <p>01 Januar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회 이사회 개최 - 연구 분야별 여성과학기술인 학술행사 모집 공고 | <p>07 Jul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회 이사회(확대) 개최 - 84호 소식지 발간 - 한-캐나다 학술대회(CKC2022) 참석 및 학술세션 개최 |
| <p>02 Februar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분야별 여성과학기술인 학술행사 개최 지원 | <p>08 Augus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 YWS Camp & Smart Sister Workshop 개최 - 한-미 학술대회(UKC2022) 참석 |
| <p>03 March</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회 이사회(확대) 개최 - 한-미-캐나다 여성과학자 웨비나 운영 (연중) - 여성과학기술인 인력교류 활동 모집 공고 - 83호 소식지 발간 | <p>09 Septemb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회 이사회 개최 - 지역별 연구협력 세미나 개최 - 과학융합 아카데미 (메가 워크숍) 개최 |
| <p>04 Apri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탐구교실 운영 (연중) - Smart Sister Program 운영 (연중) - 여성과학기술인 인력교류 활동 지원 | <p>10 Octob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2회 INWES APNN Meeting 참석 - 지역별 연구협력 세미나 개최 |
| <p>05 Ma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회 이사회 개최 - 과학탐구교실 강연자 워크숍 개최 - 지역별 연구협력 세미나 개최 | <p>11 Novemb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회 이사회(확대) 개최 - 과학탐구교실 우수소감문 시상식 개최 - 광역권별 워크숍 개최 - 85호 소식지 발간 |
| <p>06 Jun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권별 워크숍 개최 - 여성과학기술인 Jumping-up 프로그램 운영 - 여성과학기술인 연구현장 의견수렴 FGI 조사 | <p>12 Decemb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0회 정기총회 및 융합워크숍 개최 - 국제여성과학기술인 정책보고서 발간 |

※ 상세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수상소감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인상
산업부문



김민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안녕하세요. 수소연료전지의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제게 과분한 상을 수상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랜 세월 같이 고생하신 연구자분들과 연구 외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지지자분 들께 본 수상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했고 대학원에서는 대형 시스템의 설계, 제어, 모니터링, 품질관리를 포함한 Systems Engineering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저는 순수 과학에 대한 탐구 보다는 개발 기술의 실질적 응용 및 상용화에 관심이 많아, 대학원 시절 Technical Consulting 벤처를 공동 창업하기도 했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입사해서도 개발 기술의 기업체 이전을 통한 상용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창업은 비록 실패 했지만 R&D 성과로 나온 기술이 실제 현장에 적용되는 동안 발생하는 고난의 과정을 몸소 체험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2010년부터 본격 시작된 연료전지 시스템 기술들의 산업체 기술이전 경향이 수차례 있었는데, 이중 동아퓨얼셀(株)의 차세대 건물용 연료전지 시스템 기술이전이 2021년 KS, KC 인증을 모두 획득하고 완제품으로 재탄생된 순간이 저의 짧은 연구 인생에서 가장 기뻐던 순간이었습니다. 핵심 기술을 기업체에 그냥 이전하고 끝나면 기술을 이전 받은 기업의 영향력에 따라 그 기술의 완성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은 연구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차세대 건물용 연료전지 시스템 기술은 단순 기술이전에서 멈추지 않고 연료전지 전문기업을 새로 설립하고 우리 연구원의 연구소기업에도 등록하면서 약 5년 여간 지속적 지원을 해왔습니다. 오랜 기간 연료전지 기술의 온전한 사업화를 위해 우리 그룹의 많은 연구자분들과 함께 공을 들였던 만큼 우리 기술의 상품

화에 대한 기쁨도 배가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과학기술 개발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잘 맞는 업무라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과학계에서도 융복합 기술 개발이 대세입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지식을 대입하고 과제를 기획하고 펀드를 확보하고 제품을 설계하고 만들어 평가하는 전 과정에서 누구 혼자만의 능력으로 우수한 성과를 도출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시키면서 자기 역량을 극대화시키는 부드럽고 합리적인 리더십이 점점 더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관계 지형적 성향이 강한 여성들은 이 같은 리더십을 발휘하기에 확실히 유리합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협업을 수행하는데 독단적이지 않고 환경과 여건을 함께 고민하고 최선의 솔루션을 도출하려고 노력합니다. 현재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꿈나무, 학업을 진행하고 있는 학생, 현업에서 연구하고 계신 많은 여성과학기술인분들, 여성의 부드럽지만 강력한 힘으로 인류공영의 큰 꿈에 과학기술로 한걸음 다가설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열정을 불태우는 우리 여성과학기술인분들에게 뜨거운 응원과 지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약력

- 現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수소에너지연구본부 책임연구원
- 現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에너지공학전공 전임교수
- 前 수소에너지안전 미래전략특위 위원
- 前 충남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위원
- 前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코리아 연료전지 부좌장

수상소감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인상
진흥부문



문애리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안녕하세요? 2021년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 진흥상'을 수상한 문애리입니다. 이 상은 여성과학기술자들의 권익 보호와 양성평등적 활용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많은 분들을 대표하여 제가 받게 된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983년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생화학 전공으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1989년에 귀국하여 유전공학센터(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립보건안전연구원(현 식품의약품안전처)를 거쳐 1995년에 덕성여대 약대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연구와 강의에 매진했습니다. 많은 후보자 중 제가 채용되었다는 것, 특히 여성에게 불리한 과학분야에서 대학교수가 되었다는 건 그 당시로선 커다란 행운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받은 은혜를 강의도 연구도 뛰어나게 잘하는 것으로 보답하고 싶었고, 제가 잘해야 후배 여성들에게도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성이 과학을 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여자라서 힘든 일을 못한다는 편견을 극복해야 하고, 아직까지도 남아있을지 모르는 '같은 값이면 남성'이라는 사회적 정서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성 스스로 뛰어난 전문지식과 기술로 무장한 실력가가 되어야 합니다. 밤 늦게까지 실험실을 지키며 고된 일을 마다하지 않아야 하고 맡은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내는 책임감과 근성이 필요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 개발, 제도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1993년에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가 창립되어 여성과학기술인의 지위 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2001년에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이 창립되었고, 저는 창립멤버로 활동하였습니다. 제 앞에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었고 아이들도 어렸던 터라 쉽지 않았지만

여성과학자들이 커리어를 개발하기에 너무나 척박한 환경이었던 그 시절, 여성과학자들의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2003년 여성과학기술관련 단체들을 아우르는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창립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헌신에 힘입어 양성평등적인 개념에 입각한 고용평등, 연구비 할당 등을 통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음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성과학자 활동을 통하여 얻은 게 참 많습니다. 제가 아는 선후배 여성과학자 분들은 모두 일과 가정을 양립해야 하는 고단함 속에서도 시간을 쪼개가며 연구와 강의, 그리고 학회 및 위원회 활동 등에 최선을 다하는 분들입니다. 전공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과 철저한 책임감에 더하여 따뜻한 인간미까지 갖추셨습니다. 늘 저에게 귀감이 되어주시고 큰 힘이 되어주고 계심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대가 변화하는 속도가 눈부십니다. 우리 여성과학기술계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여 성장하고 발전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 역량을 높이는 데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약력

- 現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대외협력부원장
- 前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장
- 前 덕성여자대학교 부총장
- 前 대한약학회 회장
- 前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 회장



여성 리더십이 만드는 과학기술의 미래
KW-Leadership, SE-Future




2022 KWSE 사업소개

국제 여성과학기술인 단체협력 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는 여성과학기술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미래 인재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으로 '국제 여성과학기술인 단체협력'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차세대 여성과학기술인 글로벌 역량 제고 및 네트워크 확대, 연구 분야별 여성과학기술인 학술교류 및 국제 협업기반 확대, 국제 여성과학기술인 네트워크 강화 사업을 운영하여 경력단계별 국제 여성과학기술인 참여 활성화와 국내외 인력교류 및 협력연구 기반 강화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본 사업을 통해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연구역량 강화 및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 확장 기회를 제공하며, 더 나아가 해외우수여성과학기술인과의 인력교류 활동을 지원하여 국제 공동연구 아젠다 발굴 및 공동연구 발판의 초석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전문가 단체 간 국제협력활동으로 여성과학기술인 간 국제적 네트워크 외연 확장 및 과학기술 외교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 | |
|--|--|--|
|  <p>차세대 여성과학기술인 글로벌 역량 제고 및 네트워크 확대</p> |  <p>연구 분야별 여성과학기술인 학술교류 및 국제 협업기반 확대</p> |  <p>국제 여성과학기술인 네트워크 강화</p> |
| <p>차세대 국제 여성과학기술인 캠프 (International Young Woman Scientist Camp)</p> <p>주한외국 여성과학기술인 네트워크 선도 프로그램 (Smart Sister Progra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 실무교육 - 주제별/지역별 소모임 활동 - Smart Sister Mentoring Program | <p>연구 분야별 여성과학기술인 학술행사</p> <p>재외 한인 여성과학기술인과의 기술정보 교류 프로그램</p> <p>- 여성과학자 웨비나 - 재외 학술대회 연계 학술행사</p> <p>해외 우수 여성연구자와의 공동연구 인력교류 활동 지원</p> | <p>세계여성과학기술인네트워크(INWES) 활동</p> <p>국제 여성과학기술인 정책협력 활동</p> <p>국제 여성과학기술인 교류지원 플랫폼 'WWST' 활용</p> |

여성과학기술인 과학탐구교실 사업 (대전광역시)

여성과학자들이 과학교육 현장을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강연을 펼치는 '여성과학기술인 과학탐구교실'은 청소년들의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를 높여 과학 대중화에 기여하고, 과학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대전광역시의 지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다.

여성과학자들의 방문 강연으로 청소년에게 과학자와 과학기술에 대해 친밀감을 형성하고, 교과 과정 밖의 최신 과학기술 분야와 다양한 직업을 연계한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과학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과학적 잠재능력을 발굴하고자 한다.

지속적인 사업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발전시키고 있다. 올해 새롭게 시도되는 랜선 과학탐구교실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강연이 어려워져, 온라인을 통해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한 발짝 다가가려한다.

주요내용

- 

대전광역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방문 및 과학강연

여성과학기술인 과학탐구교실의 시작과 함께 한 1교 1과학 강연은 여성과학기술인 강연자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과학 강연을 펼치는 프로그램이다. 물리, 생물, 화학, 지구, 천문우주 등 기초과학부터 국방과학, 기계공학, 정보통신, 에너지 등 응용과학까지 다양한 분야의 주제로 강연이 진행되고 있다.


- 

움직이는 실험학습

강연을 통해 배운 과학지식과 연계된 실험을 통해 직접 만들어보고 눈으로 체험하여 학습 효과를 높이는 프로그램이다.


- 

과학도서 멘토링

멘토와 멘티가 선정한 과학도서를 읽고 만나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는 프로그램으로, 과학도서를 통하여 멘토와 친밀감을 형성하여 과학적 궁금증과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과학탐구교실 우수소감문 시상식

2010년부터 참여 학생들의 소감문 중 우수 소감문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학생들은 소감문 작성을 통해 과학기술에 대해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생각을 표현하는 기회를 갖고 있다.


- 

여성과학기술인 강연자 세미나

과학탐구교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강연 콘텐츠 개발, 신규 강연자 유입 독려 등 사업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강연 기법을 향상시키고 강연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과학탐구교실 홈페이지(www.kwse.or.kr/science)를 통해 프로그램 신청과 매진 현황을 관리하여 사업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업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이전 강연 정보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과학탐구교실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교와 강연자는 과학탐구교실 홈페이지에서 신청 할 수 있다.



제14대 임원진 및 위원회 소개



30주년 기념사업 특별위원회

- 30년 성과 정리 및 향후 30년 비전 수립
- 규정, 디 등 정비
- 2023년 30주년 기념식 기획

30주년 기념사업 특별위원회는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KWSE)의 30주년을 준비하고 기념하기 위해 14대에 신설된 위원회입니다.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2023년은 KWSE에게 매우 의미 있는 해입니다.

KWSE는 1993년 창립 이래로 눈부신 성장과 함께 훌륭하고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하였으며, 이러한 KWSE의 모든 역사와 자취를 회원님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난 30년을 되돌아보고 향후 30년 비전을 수립하여 또 다른 큰 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준비시기로 삼겠습니다. 또한, KWSE 30주년 기념식은 회원 중심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KWSE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한미정 위원장

1990년도에 부산대학교 고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University Alabama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화학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위원 강현주 운영위원

1999년도에 안동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재직 중이다.



위원 김소희 운영위원

2001년도에 단국대학교 과학교육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박사수료를 하였다. 현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위원 안선주 운영위원

2002년도에 중앙대학교 약학과를 졸업하고 오하이오주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화학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이사 성은정 이사

1994년도에 대구가톨릭대학교 의류학과를 졸업하고 큐슈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위원 김미랑 운영위원

1994년도에 영남대학교 생화학과를 졸업하고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위원 박지연 운영위원

1999년도에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위원 조성희 운영위원

2002년도에 단국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화학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제14대 임원진 및 위원회 소개



회원활동위원회

- 자문위원회 운영
- 신입회원 활동 지원
- 회원의 적극적 활동을 위한 방안 발굴 및 제안
- Jumping-up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KWSE) 회원 여러분 사랑합니다. 회원활동위원회는 제14대에 신설된 새내기입니다. 새내기의 마음은 선배와 만나고 동기와의 친하게 지내면서 KWSE를 알아가며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선배님들의 애정 어린 이야기가 후배님들의 삶에 능력이 되도록! 후배님들의 활동과 성장이 선배님들께 힘이 되도록! 어깨동무하며 손잡고 나아가는 회원님들의 네트워크가 상호간에 멘토링이도록! '회원님'과 함께, '자문위원님'과 함께, 'Jumping-up'과 함께 하는 세 가지 역할로 연결자가 되겠습니다. 신진 여성과학기술인들이 중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익한 네트워크 장인 Jumping-up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 여러분들께서 더 큰 시야를 갖춘 과학계의 참 인재,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시길 소망합니다.



위원장 최선미 위원장

1994년도에 대구한의대학교 한의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한의학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위원 김현경 운영위원

2006년도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신소재공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강원대학교에 재직 중이다.



위원 박경선 운영위원

1996년도에 충남대학교 천문우주학과를 졸업하고 나고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충북대학교에 재직 중이다.



위원 오현주 운영위원

1993년도에 부산대학교 생물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국립수산물과학원에 재직 중이다.



위원 임남희 운영위원

2001년도에 충남대학교 응용생명화학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한의학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위원 최연서 운영위원

2005년도에 경북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포항공과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로봇융합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이사 김영혜 이사

1981년도에 부경대학교 해양생물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국립수산물과학원에 재직 중이다.



위원 남주연 운영위원

2010년도에 전북대학교 환경공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위원 백정인 운영위원

2007년도에 경북대학교 생물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대구한의대학교에 재직 중이다.



위원 이경숙 운영위원

1995년도에 경북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위원 임혜선 운영위원

2006년도에 건양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하고 충남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한의학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위원 황은미 운영위원

1996년도에 경희대학교 생물학과를 졸업하고 아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이사 최선 이사

1987년도에 이화여자대학교 제약학과를 졸업하고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에 재직 중이다.



위원 박지은 운영위원

2004년도에 서울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한의학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위원 오주영 운영위원

2004년도에 건국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재직 중이다.



위원 이지영 운영위원

1999년도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미생물학과를 졸업하고 경상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위원 신수경 운영위원

1993년도에 부산수산대학교 대기과학과를 졸업하고 부경대학교에서 박사수료를 하였다. 현재 (주)이정이앤씨에 재직 중이다.



제14대 임원진 및 위원회 소개



교육학술위원회

- 회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교육, 연수, 세미나 등)
- 학술행사기획 주관 (워크숍, 포럼 등)
- 재외 한인 여성과학기술인 Webinar 운영

교육학술위원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내외 환경에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KWSE)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교육, 연수, 세미나 등)을 기획하고 제공하고자 합니다. KWSE 회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이러한 다양한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융합과 소통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자 합니다.

회원들이 주관하는 연구 분야별 여성과학기술인 학술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과학기술분야를 넘어 인문학분야의 이해도 넓힐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통섭이 가능한 교류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더불어 재외 우수 여성한인과학기술인과의 학술인적 교류를 통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외 최신 연구동향 공유를 위한 Webinar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활발한 교류의 장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진아 위원장

1988년도에 Columbia University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과학기술원에 재직 중이다.



위원 김지선 운영위원

2001년도에 한밭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교원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과학기술원에 재직 중이다.



위원 정진영 운영위원

2004년도에 인하대학교 응용화학공학을 졸업하고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재직 중이다.



이사 이현주 이사

2004년도에 MIT Electrical Engineering과를 졸업하고 Stanford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과학기술원에 재직 중이다.



위원 이정민 운영위원

1996년도에 조선대학교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KT&G 중앙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위원 조혜륜 운영위원

1999년도에 연세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하고 하이델베르크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국제네트워크위원회

- INWES 활동: INWES 이사국, APNN 활동
- 국제정책협력활동
- UKC, CKC 참여
- KWSE 영문 홍보자료 감수

국제네트워크위원회는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KWSE) 회원들의 국제적 위상 제고 및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KWSE가 주도적으로 활동해 온 세계여성과학기술인네트워크 (INWES) 이사회 활동 지원과 국제기구 활동 협력을 통해 국제 사회 및 세계여성과학기술인과의 교류 기반을 견고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여성과학기술인과의 정책 협력 활동을 아프리카 지역까지 확대·지속하여 NGO로서 한국 여성과학기술인 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여성과학기술인의 지위 및 활용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도출과 아시아태평양 지역네트워크(APNN)과의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UKC, CKC 등 재외한인 과학기술대회에 참석하여 재외 우수 여성한인과학기술인과의 학술세션을 개최하여 연구성과 공유 및 국제공동연구의 실질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글로벌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 되고자 하는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숙경 위원장

1989년도에 서울대학교 약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재직 중이다.



위원 김상경 운영위원

1996년도에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위원 이지연 운영위원

1998년도에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재직 중이다.



이사 김현옥 이사

1997년도에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베를린공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위원 박혜영 운영위원

1996년도에 부산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동서대학교에 재직 중이다.

KWSE

제14대 임원진 및 위원회 소개



기획운영위원회

- KWSE 사업 기획 및 관리 (과기부, 과총 등) 지원
- KWSE 지부활동지원 및 Smart Sister Program 운영
- YWS Camp 및 Smart Sister Program 총괄워크숍 주관

기획운영위원회는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역량강화와 네트워킹을 위해 여러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광역권별 지부 운영을 통해 여성과학기술인들의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산학연 융합아카데미 개최, 주한 외국인 여성과학기술인들의 네트워킹을 지원하기 위해 Smart Sister Program을 운영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차세대 여성과학기술인들을 위한 Young Woman Scientist Camp를 통해 우리 여성과학기술인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더 큰 시야를 갖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시길 지원합니다.

위원장 전상미 위원장
2000년도에 한양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하고 University of Pittsburgh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이사 양성운 이사
1991년도에 이화여자대학교 과학교육과를 졸업하고 Polytechnic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충남대학교에 재직 중이다.

위원 김효정(부산울산경남지부장)
1994년도에 이화여자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광주과학기술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부산대학교에 재직 중이다.

위원 한송희(광주전남지부장)
1993년도에 이화여자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목포해양대학교에 재직 중이다.

위원 황하영(대구경북지부장)
1995년도에 경북대학교 유전공학과를 졸업하고 가톨릭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 재직 중이다.

위원 봉연식 운영위원
1996년도에 충남대학교 지질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위원 서민아 운영위원
2003년도에 이화여자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재직 중이다.

위원 송희은 운영위원
2000년도에 이화여자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하고 Washington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위원 이종숙 운영위원
1989년도에 서울대학교 무기재료공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전남대학교에 재직 중이다.

위원 이진영 운영위원
1999년도에 서울대학교 응용화학부를 졸업하고 University of Geography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APEC 기후센터에 재직 중이다.

위원 정한의 운영위원
2008년도에 충남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에 재직 중이다.

위원 조미옥 운영위원
1994년도에 한국과학기술원 항공우주공학과를 졸업하고 포항공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위원 한영수 운영위원
2000년도에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과를 졸업하고 University of Michigan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충남대학교에 재직 중이다.

KWSE

제14대 임원진 및 위원회 소개



대외협력위원회

- 비회원 대상 재능기부사업 (강연, 콘텐츠 개발)
- 사회봉사 활동 및 유관단체와의 협력 사업

대외협력위원회는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KWSE) 회원을 중심으로 대외 유관단체와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한 융합 아카데미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꾸준히 수행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과학탐구교실 사업은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여성과학기술인 강연, 과학실험 실습 등을 통해 추진하여 과학의 대중화와 미래 과학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온라인 랜선 과학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을 추진하여 국가사회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KWSE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융합 아카데미의 주제와 사회봉사 활동에 대한 회원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제안을 위한 문은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위원장
1989년도에 전남대학교 전산학과를 졸업하고 충남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재직 중이다.

이사 최은영 이사
2000년도에 동국대학교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광주과학기술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위원 강점자 운영위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복합지능연구실에서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술 개발을 20년 동안 수행하고 있으며, 관심분야는 자연어 처리, 블록체인 기술, 빅 데이터 분석 등이다.

위원 권은진 운영위원
1991년 대구카톨릭대학교 화학교육과를 졸업하고 대전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육군장교로 근무 후 현재 구미대학교에 재직 중이다.

위원 노희숙 운영위원
1990년도에 전북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에 재직 중이다.

위원 성정식 운영위원
1992년도에 부산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충남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재직 중이다.

위원 안부영 운영위원
1982년도에 송전대학교 전자계산학과를 졸업하고 충남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위원 엄현진 운영위원
2011년도에 한양대학교 재료공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위원 이수정 운영위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근무하며 연구분야는 지오폴리머와 공정광물학이다.

위원 임조령 운영위원
충북대학교 천문우주학과에서 학사/석사학위를 취득하고, Texas A&M University 항공우주공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인공위성을 개발하며 주요 연구분야는 위성 궤도, 영상 처리다.

KWSE

제14대 임원진 및 위원회 소개

정보위원회

- 여성과학기술인 DB 구축 및 관리
- 홈페이지, SNS 관리 등

사회 ·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보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KWSE)의 활동 정보를 제공하고 KWSE의 결속과 발전을 위해 이루어져야 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고민하겠습니다.

또한, SNS를 활성화하여 회원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다방면으로 활용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도 KWSE SNS, 유튜브 등을 통해 KWSE에서 개최하는 행사, 교육 등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를 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선하고, 우리의 활동을 서로 공유하고 널리 알릴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회원 및 많은 사람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의 위원장
1993년도에 숙명여자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기계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위원 구혜영 운영위원
2005년도에 건국대학교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재료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위원 여선주 운영위원
2011년도에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기계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이사 곽지혜 이사
1996년도에 이화여자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하고 Universite Montpellier II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위원 김혜정 운영위원
2012년도에 포항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고려대학교에 재직 중이다.

위원 이은지 운영위원
2002년도에 연세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광주과학기술원에 재직 중이다.

KWSE

제14대 임원진 및 위원회 소개

정책위원회

- 정책 제안 (정책사안 별 TFT운영)

그 동안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KWSE)는 여성과학기술인의 활용과 지원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관련 기획을 수행하여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애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여성 리더들이 배출되었고, 현재 여러 분야에서 많은 여성과학기술인들이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KWSE는 1997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법 제정 필요성을 대두시켰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노력의 결과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올해 정책위원회에서는 5차 여성과기인 육성 · 지원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KWSE 회원들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5차 여성과기인 육성 · 지원 기본 계획 수립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 윤정선 위원장
1991년도에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위원 변수정 운영위원
1999년도에 충남대학교 컴퓨터학과를 졸업하고 South Dakota State University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에 재직 중이다.

위원 이미영 운영위원
1997년도에 충남대학교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한의학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위원 최영진 운영위원
2001년도에 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라이카카메라코리아(주)에 재직 중이다.

이사 강주희 이사
1999년도에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재료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위원 안인성 운영위원
1994년도에 고려대학교 응용동물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위원 이승미 운영위원
1995년도에 전북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위원 하재순 운영위원
2013년도에 중부대학교 미용분장과를 졸업하고 고신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닥터하스킨에 재직 중이다.

위원 김은성 운영위원
1985년도에 이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중다.
현재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재직 중이다.

위원 우새미 운영위원
2003년도에 이화여자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부산산업과학혁신원에 재직 중이다.

위원 이민선 운영위원
1989년도에 숙명여자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네브라스카 주립대학교에서 박사수료를 하였다.
현재 충남대학교에 재직 중이다.

KWSE

제14대 임원진 및 위원회 소개



홍보편집위원회

- KWSE 소식지 및 홍보지 발간
- 보도자료 제공 및 홍보자료 제작

홍보편집위원회는 설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약 2,000여명 규모로 성장한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KWSE) 회원들의 활동을 소식지 (연 3회 발간)와 뉴스레터 (매 월 발간)을 통해 공유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합니다. 또한, KWSE 홍보 브로셔를 제작하여 대내외에 KWSE를 알리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식지를 통해 여성과학기술인들이 연대감을 느끼고 격려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다양한 경력과 이력을 가진 국내 및 해외 회원들의 활동을 알리는 소통의 장이 되고자 하며, 9개의 전문위원회에서 추진하는 활동 내용을 공유함으로써 비대면이 일상화된 COVID19 상황에서도 언제 어디서든 KWSE와 함께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회원님들의 크고 작은 소식들, 많이 들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희연 위원장

1996년도에 충남대학교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위원 김가영 운영위원

2002년도에 아주대학교 환경공학과를 졸업하고 광주과학기술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위원 류승미 운영위원

1997년도에 충남대학교 미생물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MOT 박사수료를 하였다.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 재직 중이다.



이사 조은위 이사

1987년도에 연세대학교 생화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위원 배지혜 운영위원

2007년도에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위원 임은경 운영위원

2007년도에 연세대학교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KWSE

제14대 임원진 및 위원회 소개



총무단

- KWSE 업무 총괄 운영
- 위원회 간 상호협조와 활동 지원
- 타 분과 업무 지원

총무단에서는 사무국과 함께 KWSE의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하고 재정을 관리하며, 9개 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사업, 행사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여성과학기술인 단체로서 그동안 구축해 온 사회적 기반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보다 향상된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지위 향상과 역량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함께하는 KWSE가 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창구역할을 하겠습니다.



총무이사 유향미 총무이사

1999년도에 경북대학교 컴퓨터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에 재직 중이다.



총무이사 최은정 총무이사

1997년도에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천문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감사

- 예산집행 및 수행사업 감사
- 정관에 의거한 회 운영 감사

감사는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의 예산집행과 회계결산을 확인하고 회원 가입 및 탈퇴, 총회 및 이사회, 회장선거, 수행사업 등의 정관과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투명하게 운영되는지를 검토합니다. 역대 임원들과 회원들의 헌신적인 활동으로 회원의 수가 늘어나고 사업의 예산집행 규모가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이에 예산집행과 사업수행을 원칙에 의거하여 공정정대하게 운영함이 더욱 중요합니다.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의의 꾸준한 발전을 위해 감사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감사 이정숙 감사

1987년도에 경북대학교 미생물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감사 안설아 감사

1995년도에 포항공과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여성과학기술인

Table Talk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이끄는 4명의 여성과학기술인’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50 탄소중립’ 선언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변화된 지구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현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가 정책 수립과 R&D 기획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여성 연구자 4인을 만나서 작은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Q.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박민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기후기술전략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국가정책 및 R&D 전략 수립과 과기정통부의 R&D 기획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경은 한국연구재단 에너지환경단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기정통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신규사업과 과제 기획 업무를 주로 맡고 있으며, 관련한 정책과 R&D 전략수립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원래 소속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광연구실이지만 현재 과기정통부에 파견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과기정통부 원천기술과에서 기후변화 대응 관련 신규사업기획과 정책지원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원래 전공이 태양광 분야라서 과기정통부에서 재생에너지 분야의 기술적 지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신지영 저는 한국환경연구원 소속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센터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국가 적응 정책수립,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산업계 컨설팅, 시범사업, 교육·홍보 등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Q.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이슈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업무상 그러한 변화를 직접 체감하시나요?

박민희 저는 입사 이후, 약 10년 동안 에너지/기후변화 정책수립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탄소 저감에 한정된 기술 분야에 집중했던 초기와 달리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넓은 범위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더욱 다양한 전문가들과 협업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은 당장 눈앞에 벌어지거나 리스크가 체감되지 않아서 인지 우선순위에서 다소 낮게 평가하던 산업계들이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화두 앞에서 다 같이 한마음이 되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함께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기정통부에서는 2022년 1월 기후변화 대응 관련 기술정책과 국제협력 전담기관을 지정해 ‘기후변화 대응 핵심기술개발’부터 ‘혁신생태계 조성’에 이르는 전주기 지원을 강화할 계획인데요. 저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2022년 1월 6일, 기후변화 대응 기술정책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지금까지도 바쁘게 살았었는데 앞으로 더 바빠질 것 같아요.

문경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이슈가 발표된 후 재단은 굉장히 바빠졌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분야의 R&D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슈가 부각되기 이전에는 일 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는 약 2개 정도를 진행하고 신규 사업은 2~3개 정도 기획했었다면, 2021년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4개와 신규사업 7개를 기획했습니다. 정말 정신없는 한해였어요. 덕분에 올해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관련 과제가 많이 공고될 예정입니다.

이정인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이 이번 정부에서 굉장히 주요한 이슈여서 부처에서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신규사업 기획과 각 분야별로 로드맵/정책 발표가 이루어진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실 R&D의 경우는 장기적이고 긴 호흡을 가지고 이루어진다고 생각되는데, 정책분야의 경우는 장기적인 관점을 지향하면서도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조금씩 자주 변동되는 부분이 분명 존재합니다. 연구자의 시각에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지만, 정책적 흐름과 정부 기조변화에 바로바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파견을 나와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국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정책 결정권자와 R&D를 수행하는 과학기술인들이 서로를 좀 더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지영 지금까지 기후변화 대응이라고 하면 대부분 온실가스 감축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폭염, 홍수 등 자연재해의 빈도가 증가하고 강도가 더 세짐에 따라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기후변화 적응 분야에 관심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참 기쁜 일이지요. 이제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정보를 어떻게 모으고 정리할 것인지, 시급히 개발되어야 할 기후변화 적응 기술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국제협력과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더 기울이고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민희 실장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기후기술전략실

Q. 이 분야에서 대부분 10년 내외로 경력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성으로서 업무를 진행하면서 힘들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박민희 예전에 국가 연구개발사업 선정 평가를 받으러 간 자리에서 아직 나이가 많지 않는데 대형과제를 맡게 된다면 다양한 전문가들과 협업 네트워크를 잘 구축해서 과제를 효율적으로 꾸려나갈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만약 책임자가 나이가 많지 않은 남자였어도 저런 의문이 들었을지, 그리고 그런 질문을 당사자에게 했을지 아직까지도 궁금합니다.

문경은 많은 분들이 과제 기획위원회에 여성 전문가가 없다는 것에 대해 남녀차별이 아니냐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사실 기획위원회 구성은 추천을 받기도 하지만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성과가 출중하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후보군에 포함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기획과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뽑아서 성과가 많은 순으로 전문가 분들의 Pool을 만드는데 여성연구자들이 남성연구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성과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 물론 남성연구자와 여성연구자의 비율이 차이가 크기도 해요. 여성연구자들이 훨씬 적긴 하죠. 하지만 여성연구자들이 조금 더 유리한 점이, 오히려 성과가 일정수준 이상 있다면 기획위원회 구성 시 여성연구자들은 어떻게든 기획위원으로 모시려고 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이정인 부처에서는 업무의 특성상 남녀가 차별을 받을만한 업무의 비율이 낮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급 이상, 다시 말해 국장이나 실장 급 이상의 고위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정말 낮았었다가 이제야 조금씩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은 과도기 단계인 것 같아요. 사실 정책 분야의 경우 수행하는 일 자체에서 남녀가 차별을 받는 일은 많지 않은 편이고, R&D 분야와는 달리 업무의 전문성에 초점을 두지 않기 때문에 일을 좀 더 담백하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R&D 분야는 조금 다른데, 예전에는 성과가 아무리 좋아도 여성이라서 임용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었죠. 이제는 인재 채용 시 블라인드 제도가 도입되면서 점차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지영 사실 제가 활동하는 분야인 환경분야는 활동하는 여성전문가들이 많아서 그런지 확실히 남성과 여성의 구분은 느낌상 덜한 것 같아요. 요즘은 남성 여성이 아니라 세대 간 차이가 더 몸소 와 닿는 것 같아요. 확실히 세대마다 가치관이 다르더라고요. 최근에는 그런 세대갈등에 대해 어떻게 잘 조율할지, 어떻게 하면 서로 다 조화롭고 만족하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더 큰 것 같습니다.

Q.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조직문화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제 대부분 중간관리자분들이시니 조직문화나 조직관리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문경은 최근에 재단의 경우는 조직문화가 조금씩 좋은 쪽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많이 쓰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 예전에는 보직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상황은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최근 들어 선구자가 하나씩 생기며 그런 금기도 깨지고 있어요. '일·가정 양립'이라는 조직문화가 이제 서서히 정착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그렇게 육아휴직을 쓰시는 분이 생기면 그 자리를 신규 인력으로 충원을 해줘야하는데, 인력충원이 힘들니 남아있는 일들을 남녀를 불문하고 미혼인 사람들이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육아휴직을 쓸 수도 없어요.(하하) 미혼 남녀들에게도 뭔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신지영 이제 '일·가정 양립'은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세심하게 조율해나가야 하겠지만요. 조직을 관리하다 보니 이제는 가장 신경 써야 할 이슈 중 하나가 회사에서의 개인의 성취나 행복, 혹은 만족도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는 주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공정'이라는 이슈예요.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그 과정과 평가가 공정한 절차에 맞게 진행되는지도 굉장히 섬세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조직관리에 있어서 세대별로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지다보니 다양한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정인 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광연구소



신지영 센터장
한국환경연구원 국가기후변화 적응센터



박민희 지금까지는 사실 안정적인 직장이 직업을 선택할 때 중요한 요소였다면 점점 안정적인 직장보다는 자신의 성취를 위한 모험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가치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이정인 제도상의 보완으로 이제 더 이상 여성을 약자로만 볼 수는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사실 현재 여성들이 받는 어드밴티지를 남용하게 되면 그것이 새로운 갈등을 야기 하고 조직문화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남녀간, 세대간, 기혼과 미혼 모두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며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Q. 마지막으로, 여성들이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문경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남성과 여성의 성향 차이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성연구원들은 서로 밀어주는 문화가 확실히 있어요. 그리고 일을 추진하는 방법도 저돌적이기도 하죠. 하지만 여성들은 자기검열이 남성들보다 확실히 심합니다. 이런 경향은 조금이라도 튀는 행동을 했을 때 여성들이 더 눈에 띄고 잘못되면 더 비난받는 경험에 기인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성 스스로 자기검열을 심하게 하다 보니 다른 여성들에 대한 평가 잣대도 더 높은 것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그러다보니 남성들보다 조금 더 소극적이고 보수적으로 일을 끌고 가는 경향이 있고, 여성에게 보직의 기회가 왔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 같아요.

신지영 적극적으로 보직 자리가 생겼을 때는 보직자의 자리를 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확실히 보직을 맡게 되면 업무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사실 여성분들 중에서는 그런 '자리'가 내 인생에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나에게는 내 아이와 가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보직자리 같은 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자리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개인은 물론 여성연구원들의 발전을 위해서는 '나는 여기까지만 한다.'라고 자신의 한계를 미리 설정해 버리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정인 사실 저는 그 동안 보직을 맡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보직을 맡고, 여러 위원회 활동을 활발히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런 능력을 가진 분들께서 자신들의 길을 가는 것이고, 나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실무를 하며 조용하고 잔잔하게 살고 싶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오늘 다른 분들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저의 이런 생각이 어쩌면 많은 여성 후배들이나 더 나아가 제 딸의 미래를 상상했을 때, 오히려 이기적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반성합니다. 보직 또는 적극적으로 활동할 기회가 생겼을 때 많은 여성연구자들이 소극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것도 우리의 행동반경을 우리가 한정지어버리는 것 같네요. 앞으로는 다양한 활동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민희 이제는 여성에게 국한된 '여성 리더십'이 아니라 시대 변화에 맞는 '신(新) 리더십'이 필요할 때입니다. COVID-19이 기존의 조직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법과 조직문화의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고, 세대 간의 가치관의 차이도 더욱 뚜렷해지고 있어요. 남성과 여성, 가정과 일의 조화와 같은 단순한 이슈가 아닌 다양한 환경과 가치관을 포용하고 조율할 수 있는 이시대의 새로운 리더십을 고민해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글 : 배치혜 선임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전략본부 기후기술전략실)

※ 이 글의 내용은 참석자들의 개인적 의견으로 소속된 기관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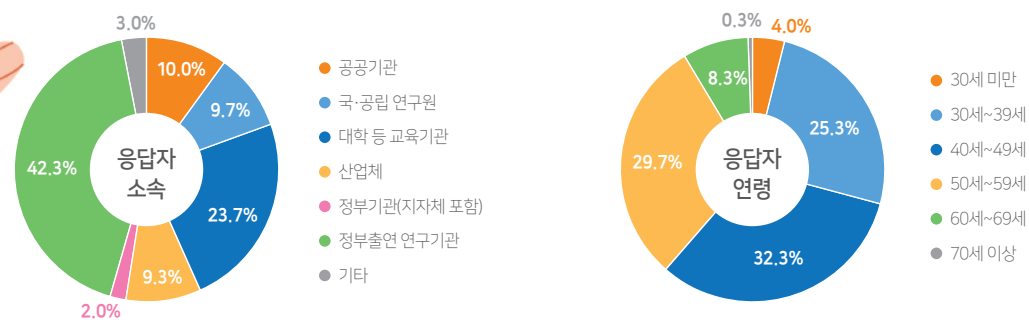
2021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 설문 결과

2002년 11월 8일 여성과학기술계 초미의 관심사였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여성과학기술인력의 양성·지원·활용이 법제도 하에서 체계적으로 실현 할 수 있는 첫 걸음을 떼었다.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는(이하 KWSE)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법(이하 여과기인법) 제정을 위해 앞장 서 왔다. 1997년 여성과학기술인력 현황에 대한 과제를 진행하며 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02년 과학기술부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함께 공청회를 개최, 11월 국회 통과라는 결실을 맺었다. 법제정 이후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현재 '제4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2019~2023)'이 시행되고 있고, 24년부터 시행될 제5차 여과기인 기본계획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KWSE에서는 연구현장에 있는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에 대한 체감도를 알아보고, 앞으로 필요한 정책이슈를 발굴하기 위하여 여과기인 300명을 대상으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 현장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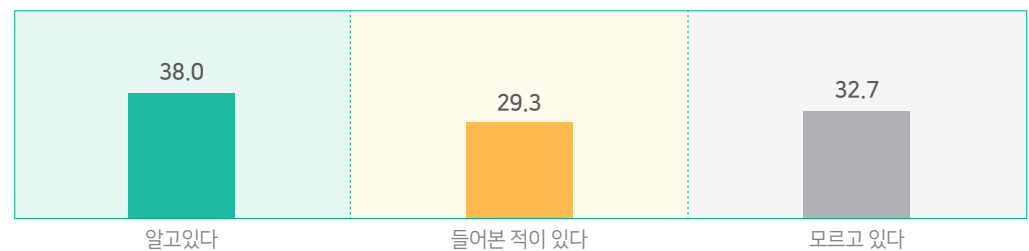
응답자의 일반특성

전체 응답자의 연령은 40~49세가 32%로 가장 많고, 50~59세가 29.7%, 30~39세가 25%로 나타났다. 응답자 소속을 살펴보면 42.3%가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이며, 교육기관 23.7%, 공공기관 10%, 국·공립 연구원 9.7%, 산업체 9.3% 순으로 나타났다.



여과기인법 및 기본계획에 대한 인지도에 대해서는 전체응답자의 38%가 '알고 있다'고 답변한 반면, '들어본 적 있다'가 29.3%, '모르고 있다'는 32.7%로 나타났다. 여과기인법 및 기본계획이 제정되어 5년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과기인법에 대한 인지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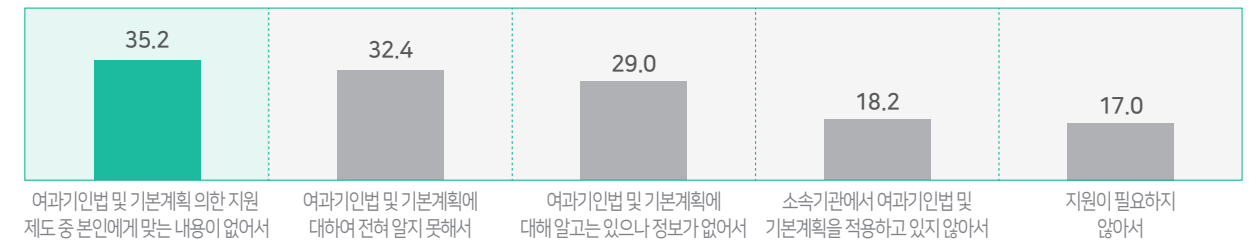
[여과기인법 및 기본계획 인지 여부]



여과기인법 및 기본계획에 대한 수혜 경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1.3%가 '있다'라고 답변한 반면 58.7%는 '없다'라고 답하였다. 수혜를 받은 경험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35.2%가 '여과기인법 및 기본계획에 의한 지원 제도 중 본인에게 맞는 내용이 없어서'로 가장 많았고, '여과기인법 및 기본계획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해서'가 32.4%, '여과기인법 및 기본계획에 대해 알고는 있으나 정보가 없어서'가 29%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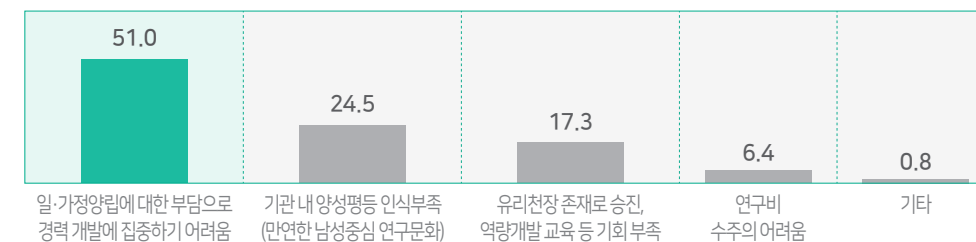
여성과학기술인 활용 확대

[여과기인법 및 기본계획에 수혜 받은 경험이 없는 이유]



여성과학기술인으로서 경력을 개발하고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 49.3%가 '그렇다'라고 답변하여 응답자의 절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일·가정 양립에 대한 부담으로 경력 개발에 집중하기 어려움'이 51.0%로 가장 높았고, '기관 내 양성평등 인식 부족(만연한 남성중심 연구문화)'가 24.5%, '유리천장 존재로 승진, 역량개발 교육 등 기회 부족'이 17.3% 순서로 나타났다.

[경력을 개발하고 성장하는데 어려운 이유]



소속기관에서의 채용목표제 시행정도에 대해서는 31.3%만이 '잘 시행하고 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승진목표제 시행정도에 대해서는 더 낮은 17.7%의 비율로 나타났다. 소속기관 위원회의 여성과학기술인 참여 비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28%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연구책임자 중에서 여성과학기술인의 비율에 대한 적정성은 14.7%만이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제도에 대해서 57%가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여 전체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담당관제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었다.

여과기인법 및 기본계획 발전 방향

지속적인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82.7%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여과기인법 및 기본계획의 변화'에 대해서 72.0%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여성과학기술인들이 여전히 겪고 있는 '일·가정 양립'의 문제 해결과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남성 중심의 수직적 조직문화를 수평적이고 조화로운 조직문화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응답자 세부특성에 따라 상이한 응답 결과를 보여 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 조치와 함께 기관, 분야, 지역별 세분화된 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FGI 조사를 통해 조금 더 심층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세분화된 이슈를 도출할 예정으로 차기 '제5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 시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여성과학기술인들에게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WISSET)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wisnet.or.kr).

특별기고:

지구를 둘러싼 우주쓰레기의 위험에 대비하라

글 최은정 한국천문연구원 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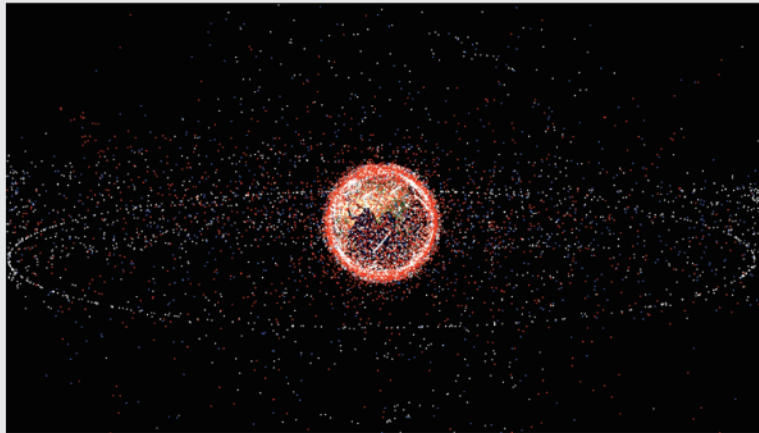
우리가 쏘아 올린 것들이 되돌아오기 시작했다.

2021년 5월, 무게 20톤, 길이 31m, 직경 5m의 잔해로 추정된 중국의 '창정 5B' 로켓의 잔해가 지구로 추락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5월 5일 어린이날인 휴일에 비상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즉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하고 잔해의 궤도를 모니터링하기 시작했다. 2000년 5월에도 '창정 5B' 발사체가 발사되었는데, 5월 11일에 로켓 잔해 일부가 남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의 마호누 마을에 떨어진 적이 있었다. 이번에도 로켓 잔해가 지구 대기권으로 재진입함에 따른 지상 피해가 예상되었기 때문이었다. 우주물체 궤도를 분석해 추락 시각과 지점을 예측함으로써 지상 추락 범위 내에 우리나라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다. 내 임무가 바로 우주위험을 분석해 추락 예측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2021년 5월 6일, 미국으로부터 궤도 정보를 받아 '창정 5B' 로켓 잔해의 궤적을 분석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 추락할 가능성은 없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런데, 대응 양상이 1년 전과 매우 달랐다. 정부와 군 뿐 만 아니라 유관기관의 관계자들 모두 우주물체의 추락 위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다. 우리나라에 떨어질 위험이 없다고 발표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중국의 로켓 잔해가 어느 나라에 떨어질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된 것이었다.

2022년 2월 3일에는 미국 스페이스X가 발사한 스타링크 위성 49개 중 40개가 지구 대기권으로 떨어지는 사례도 있었다. 위성 인터넷망 구축을 위해 지구 저궤도에 올려놓은 스타링크위성은 2019년 5월 24일 첫 발사 이후 2,000여 개를 넘겼다. 이 중 10%는 지구로 떨어졌다. 스페이스X는 재사용우주발사체와 저궤도 소형군집위성의 발사는 전 세계 우주산업을 견인하며 뉴스페이스 시대를 이끌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민간 우주산업의 증가로 급증한 인공위성으로 지구궤도가 혼잡해 지고 있었다. 이로 인해 발생된 우주쓰레기로 궤도의 오염이 유발되고 있다. 우주활동의 가속화는 우주쓰레기의 확산으로 이어져, 위성들과 우주쓰레기의 충돌이나 그로 인한 잔해들의 지구 추락 위험 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우주로부터의 위협, 우주 쓰레기

인류가 1957년 10월,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우주로 보냈다. 이후 65년이 지난 지금, 지구 주변에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공위성 뿐 만 아니라 우주 쓰레기들로 가득 차 있다. 우주 쓰레기는 수명이 다해 다 쓰고 버려진 인공위성, 고장난 인공위성, 인공위성 발사를 위해 사용된 로켓의 상단, 인공위성 폭발로 발생한 파편들, 인공위성과 우주쓰레기의 충돌로 발생한 파편들까지 우주 공간을 목적 없이 떠도는 모든 인공 우주물체들을 말한다.



지구를 둘러싼 인공위성과 쓰레기

2022년 2월 현재까지 지구궤도에서 발견되어 등록된 우주물체의 수는 총 51,600여 개이다. 이 중 현재 지구궤도에 남아있는 25,500여 개 외에는 모두 지구로 추락했다. 이 중에서도 운용 중인 인공위성은 20% 정도 남짓이다. 나머지는 모두 우주 쓰레기인 셈이다. 최근에 군집위성들이 대량으로 우주로 발사되면서 최근 2~3년간 우주물체의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결과이다. 이러한 우주 쓰레기의 위험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우주 쓰레기들이 지구 궤도에서 운용하고 있는 인공위성과 충돌하는 경우이다. 초속 7.9km 이상의 속도로 움직이는 인공위성의 충돌 위력은 크기가 10cm급만 되더라도 보통의 인공위성을 전파시키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2013년 개봉한 영화 '그라비티'는 우주쓰레기가 인공위성이나 국제우주정거장에 충돌했을 때 얼마나 위협적인지를 보여준다. 실제로도 국제우주정거장은 우주 쓰레기와의 충돌 위험을 피하기 위해 우주비행사들이 대피하거나 거대한 국제우주정거장의 궤도를 조정하기도 한다. 두 번째는 우주쓰레기가 지구로 추락하는 경우다. 우주에서 지구궤도로 재진입하는 인공우주물체들은 크기, 재질, 형태에 따라 대기권에서 전소되기도 하고, 일부 잔해가 지상으로 떨어지기도 하는데, 이때 지표면에 도달하는 잔해에 따라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 실제로 우주 쓰레기가 지상에서 발견되는 사례들이 많았고, 큰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사람이 맞은 경우도 있었다. 만약 핵연료를 탑재하였거나 하이드라진과 같은 독성물질이 있는 잔해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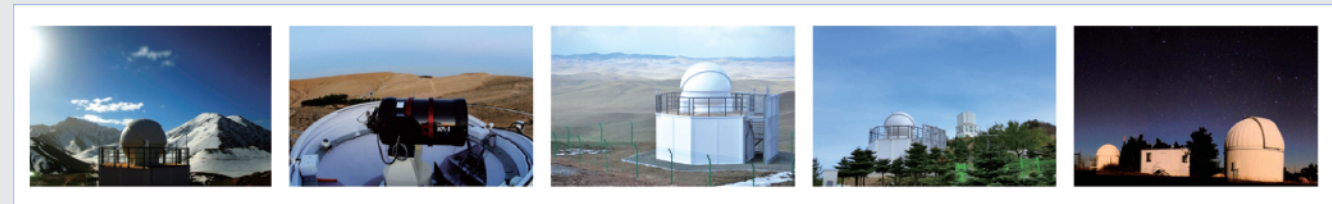
무게 8.2톤의 중국 우주정거장 텐궁 1호는 2018년 4월 다행히 남태평양에 추락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일으키지는 않았으나, 향후 우주쓰레기가 가져올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 사건이었다.

우주위험에 대비하라

우리나라는 2014년 5월 제1차 우주위험 대비기본계획('14~'23)을 바탕으로 우주물체의 추락·충돌 위험 상황에 대한 국가적 대응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지속적인 우주개발과 빈번해지는 인공위성의 추락 사건, 우주물체의 충돌위험이 증가하면서 우주위험에 대한 언론과 국민의 인식이 확대되고 있어 우주위험 상황에 대한 국가적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5년 1월 한국천문연구원을 국가 우주환경감시기관으로 지정해 우주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우주자산을



전 세계 5개국에 설치된 우주물체전자광학감시네트워크 (OWL-Net)



우주물체전자광학감시네트워크 (OWL-Net)

보호하기 위한 체계 구축, 우주위험 감시 대응기술과 우주위험 대비기반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상시적인 우주위험 감시 분석과 위험 대응 연구 개발로 우주위험에 대한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만들고자 함이다. 우리나라는 우주물체전자광학감시네트워크(Optical Wide-field patrol Network, OWL-Net)라는 50cm 구경의 광학 감시 망원경을 기반으로 한 우주감시관측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몽골, 모로코, 이스라엘, 미국, 한국, 총 5개국에 설치된 OWL-Net은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우주감시능력의 기반을 만드는데 중요한 시스템이다. 여기에 전파를 이용한 레이더 장비를 갖추려는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도 활발해지는 우주개발에 따른 우주위험의 증가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주로부터의 위험을 대비하고 잘 대처할 수 있는 대응 시스템을 확보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우주 환경보호를 위한 인류의 노력이 시작된다.

유엔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위원회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UN COPUOS)

2022년 2월 9일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제센터와 온라인으로 연결된 화상시스템으로 우주위험대비를 위한 우리나라의 우주 상황인식(Space Situational Awareness, SSA) 활동에 대해 발표했다. 우리나라가 2014년부터 진행한 연구개발의 결실과 한국에 구축된 우주물체 관측시스템들의 성과를 알리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우주활동의 실천 의지를 보이기 위함이었다. 내가 UN COPUOS한국대표단으로 참여한지 올해로 9년 째다. UN COPUOS에서의 발표는 2014년 이후 두 번째였는데, 개인적으로 공을 많이 들이기도 했고, 그동안의 연구 개발 내용이 잘 담겨졌기에 발표는 매우 만족스러웠다.



한국의 우주감시활동 발표 (제59회 UN COPUOS 과학기술소위원회)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의 문이 닫혔고, 이로 인해 매년 갔던 UN COPUOS참석이 2020년 2월 이후 2년간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UN COPUOS는 1959년 제14회 유엔총회 결의인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협력'에 따라 1961년에 설치된 상설 위원회로 우주활동을 하는 모든 국가가 가입되어 있는 실질적인 우주분야의 국제기구 역할을 한다. 사무국(OOSA; Office for Outer Space Affairs)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설치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총 100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UN이 주관하는 우주분야의 국제회의로 우주외교의 중심기구나. UN COPUOS는 매년 2월에 우주활동, 지구 원격탐사, 원자력 연료 사용, 우주파편 등에 관한 기술적 심의 위원회인 과학기술소위원회를, 4월에는 외기권조약, 구조협정, 달조약, 우주공간의 정의 등에 관한 법률적 심의 및 권고를 수행하는 법률소위원회를 연다. 그리고 6월에 본회의를 통해 우주공간의 탐사 및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간의 기술적, 법률적인 문제의 기본원칙, 우주개발 이익 등을 획득하기 위한 국제협력 부문에 관해 심의하고 UN 총회에 권고 및 제안을 한다.

우리나라도 매년 대표단을 파견하여 우주개발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소개하고 인류가 당면한 글로벌 우주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우주 쓰레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복잡해지고 있는 우주에서 보다 안전한 우주 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다. 2019년 6월 UN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로 합의한 '우주활동의 장기 지속가능성 가이드라인'은 책임있는 우주활동, 안전한 우주활동,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국제협력, 지속가능한 우주활동을 위한 연구개발을 위한 지침들을 담고 있다. 우주로부터의 위험에 대비하고, 우주쓰레기 문제를 방지하지 않는 우주환경 보호 노력은 어느 한 국가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지속가능한 우주활동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동참해 우주개발 진흥법이나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 등 국내 정책을 만들며 필요한 연구 개발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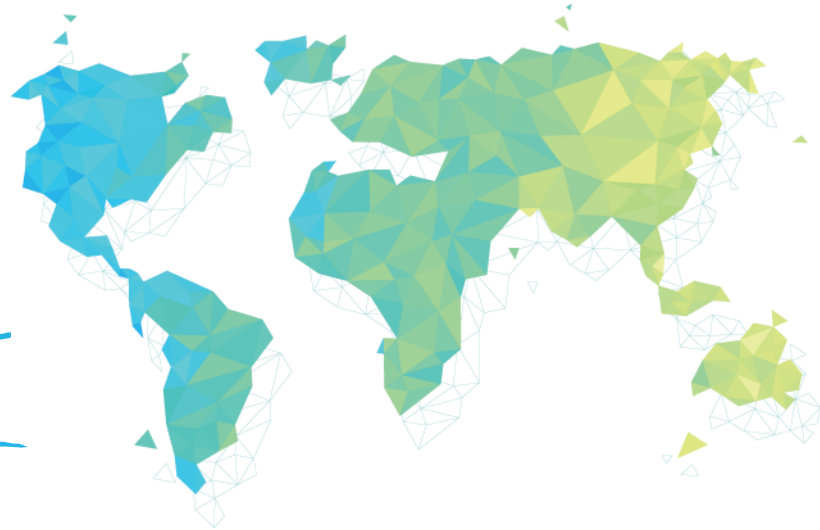
우주를 향한 인간의 꿈은 계속되고 있다. 우주개발과 함께 우주환경보호에도 관심을 갖고 지속가능한 평화로운 우주시대를 만드는데 힘을 보태보자.



최은정 한국천문연구원 실장

- 現 한국천문연구원 우주위험감시센터 우주위험 연구실장
- 現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우주기술분야 평가전문위원
- 現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위원
- 現 우주기술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
- 現 한국우주과학회 이사 및 우주감시분과위원장
- 現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총무이사

과학외교: KWSE인 세계속으로



Smart Sister 총괄워크숍 개최

2021년 11월 23일 (화) 온라인

2021 Smart Sister Workshop (이하 총괄워크숍)이 2021년 11월 23일 화요일,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총괄워크숍은 주한 외국인, 한국인, Smart Sister Program (SSP) 과거 참여자의 지속적인 교류와 1년간의 SSP 활동을 공유하는 네트워킹 프로그램이다. 올해 총괄워크숍은 국내외 취업과 경력개발 주제의 초청강연과 SSP 활동 보고로 구성되었으며 총 14개국* 48명의 차세대 여성과학기술인이 참석하였다.

* 나이지리아, 네팔, 말레이시아, 모로코, 미국, 베트남, 스리랑카, 에티오피아, 이란, 인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필리핀, 한국

한국과학기술원의 Carol Hornibrook 선임연구원은 취업과 경력개발을 주제(It's your future but we're all in this together!)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Hornibrook 선임연구원은 과학기술인, 특히 여성과학기술인간의 장기적이고 상호 유익한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큰 도움이 되고 멘토와의 교류를 통해 취업을 원하는 국가, 기관, 분야의 특성과 내부문화를 생생하게 접할 수 있다고 전하였다. 또한 SNS는 구직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외에도 경력개발단계의 최종 목표 수립과 목표를 향한 여행에 수반되어야 하는 개인의 노력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초청강연 이후에는 소모임 활동 지원 보고가 진행되었다. 소모임 활동의 첫 번째 발표는 동아대학교의 Benny Marie Ensano 박사가 RED Sisters 활동에 대해 발표하였다. RED Sisters는 역전기투석(Reverse Electrodialysis) 연구에 관심이 있는 여성 환경 엔지니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활동으로는 SCI 논문 대상 선행연구 진행 및 강원대학교 실험실 견학이 있다. 두 번째 발표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Nanda Abhilasha 박사가 Indo-Korean Sisters 그룹 활동에 대해 발표하였다. 본 그룹은 연구 협력, 문화 교류, 언어 교환 그리고 친목 도모를 쌓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모임을 통해 프로젝트 논문을 작성하였다. 소모임활동의 마지막 발표는 Model of Women in STEAM 그룹의 Phan Thi Lan 박사(한국과학기술연구원)가 이끌었다. STEM 분야의 신진 여성과학기술인의 학업, 경력개발, 워라밸을 위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윤혜은 박사와의 멘토링 및 연구실 견학 활동을 진행하였다고 전하였다. 다음으로 Smart Sister Mentoring Program(SSMP)에 참여한 멘토와 멘티가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탁혜련 멘토(한국화학연구원)는 특히 한국에서의 구직을 희망하는 멘티를 위해 정부 출연(연) 특징 소개, 연구실 문화 소개 등의 주제로 멘토링을 이끌어 나갔다. 조미옥 멘토(한국항공우주연구원)는 한국 취업을 준비 중인 멘티를 위해 취업 박람회 소개와 경력개발 조언에 집중하였고 진로계획과 일과 삶의 균형을 잡기 위한 노하우를 전하였다. 멘티로 참여한 서울대학교의 Jyoti Mahato 박사는 SSMP 멘토링 활동을 통해 한국에서 구직정보를 얻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고 멘토로부터 감정적인 지지와 격려를 받을 수 있어 도움이 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멘토와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개방적인 태도로 임하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전하였다. 마지막으로 UST 소속의 Indra Kumari 멘티가 KWSE의 Mission and Vision에 관해 설명하면서 본인의 활동 소감을 공유하였다.

지역 모임 활동보고는 부경대학교의 허수원 교수가 부산울산경남지부의 2년간의 활동을 정리하여 영상을 통해 공유하였다. 마지막 네트워킹 시간에는 2021년 활동 관련하여 질의응답 및 참석자가 원하는 SSP 활동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초청 강연 Carol Hornibrook (KA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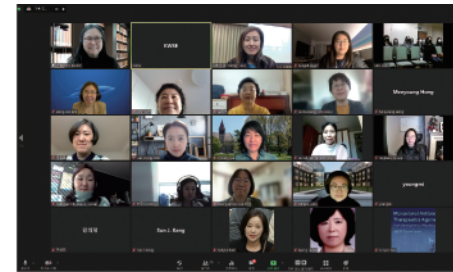
멘토링 활동보고, 탁혜련 멘토(한국화학연구원)

그룹 활동 소개

한미과학기술대회(UKC 2021)

KWSE-KWiSE Joint Forum 개최

2021년 12월 15일 (수) ~ 18일 (토) 미국 캘리포니아 & 온라인



한미과학기술대회(UKC 2021) KWSE-KWiSE Joint Forum

제34회 한미학술대회 (US-Korea Conference 2021 on Science, Technology, and Entrepreneurship; UKC 2021)가 "Pursuing Global Health and Sustainability"를 주제로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개최되었다.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KWSE)와 재미한인여성과학자협회(KWiSE)는 한국시간 기준 12월 18일 토요일 "Research Network for Global Health and Sustainability"를 주제로 KWSE-KWiSE Joint Forum을 개최하였다. 본 공동포럼에는 약 40여 명의 과학기술인이 한국에서는 온라인으로, 미국에서는 현장 및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공동포럼에서는 국제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 예측과 전염병에 대한 초청강연과 2021 KWSE-KWiSE 여성과학자 웨비나 성과 공유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여성과학기술인에게 있어 국제 네트워킹의 중요성을 논하는 패널토론으로 구성되었다. KWSE 박진아 부회장의 진행 아래 KWSE 임효숙 회장과 KWiSE 김자영 회장의 인사말로 공동포럼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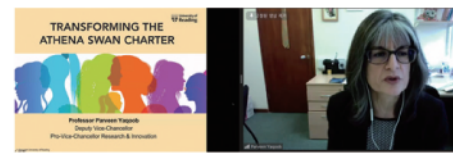
시작하였다. 첫 번째 강연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김진아 박사가 'Deep Learning for Understanding Ocean-Atmospher-Climate Phenomena'를 주제로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유해한 파도와 극한의 해수면 온도와 같은 연안재해를 예측하기 위해 딥러닝을 적용한 연구를 소개하였다. 이어서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의 문성실 박사가 'Climate Change and Infectious Disease'를 주제로 극단적인 기상현상으로 초래된 수인성 및 식품매개 감염병과 기후변화가 전염병에 미치는 미래 가능성을 이야기하였다. 패널토론에서는 전미현 박사(ATKINS, 미국), 정진영 박사(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 김동연 박사(NHLBI/NIH, 미국) 그리고 최은영 박사(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가 각각 미국과 한국의 여성과학기술인이 국제 네트워킹을 통한 연구 성과 확산 및 지식공유 활동 사례를 발표하였다. 또한 토론 시간에는 한국과 미국의 차세대와 신진 여성과학기술인의 국제교류 참여 방안 및 캐나다와 연계한 연구 소통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았다.

INWES 웨비나 개최 'Policy for Women in 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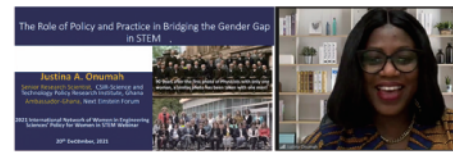
2021년 12월 20일 (수) 온라인

세계여성과학기술인네트워크(INWES)가 주최하는 'Policy for Women in STEM' 웨비나가 2021년 12월 20일 한국시간 오후 10시에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University of Warwick의 Georgia Kremmyda 교수가 좌장을 맡아 INWES (The International Network of Women Engineers & Scientists)에 대한 소개로 본 웨비나를 시작하였다. 첫 번째 발표는 University of Reading의 Parveen Yaqoob 교수가 'Transforming the Athena Swan Charter'라는 주제로 아테나스완 (Athena SWAN; Scientific Women's Academic Network)을 소개하였다. 2005년 영국에서 시작된 아테나스완은 이공계 분야 여성들의 경력 향상을 위해 제정된 헌장으로 2015년 이후로는 양성평등을 발전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으로 미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향후 아테나스완의 미래를 위해서는 유연하고, 투명한 운영과 함께 더 넓은 제도적, 사회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발표하며 데이터 모니터링과 성별 기반 권리에 관한 사회적 및 법적 환경의 발전, 개인적 경험의 복잡성, 개방적인 태도, 그리고 지침 검토 및 해당 분야와 긴밀히 협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두 번째는 CSIR-STEPRI (CSIR-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Research Institute)의 Justina Onumah 박사가 'The Role of Policy and Practice in Bridging the Gender Gap in STEM' 주제로 발표하였다. Justina 박사는 노동력의 약 30%만이 여성이라는 통계를 제시하며 지속 가능 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원칙 중 하나는 포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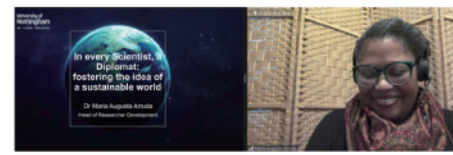
으로 과학기술혁신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STI)이 과학적 진보의 지표로서 다양한 그룹과 연계하려면 더 많은 여성이 STEM 분야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STEM 격차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가나의 Girls in ICT, Women in Engineering 프로젝트, Girls in Mathematical Science 등과 같은 다양한 정책지원 프로그램들을 소개하였다. 또한, 이공계 분야의 근본적인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행정 정책 시행 이전에 사회적, 문화적 인식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University of Nottingham의 Maria Augusta Arruda 박사가 'In every Scientist, a Diplomat: Fostering the Idea of a Sustainable World'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Maria 박사는 유엔 회원국들이 합의한 17개의 지속 가능 발전목표들 (SDGs) 소개와 함께 2021년은 전 세계적으로 과학 외교가 중요했다고 언급하며 코로나19 백신을 특정 집단 및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는 문제를 설명하였다. 또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전 세계 모든 국가와 사람들의 평등한 접근을 위해 과학 외교의 노력은 필수적이라고 발표하였고 자연과학 진흥을 위한 런던 왕립학회 (The Royal Society of London for Improving Nature Knowledge), 세계여성과학기술인네트워크 (The International Network of Women Engineers & Scientists, INWES), 미국과학진흥회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AAAS), 국제학술연합회의 (International Council for Science, ISC) 등과 같은 국제적인 과학기술 단체들을 소개하였다. Maria 박사는 향후 과학의 진보를 위해서는 더욱더 많은 여성과 소수 민족집단 (Minority) 출신들이 포함되는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발표를 마쳤다.



초청강연 _ ParveenYaqoob



초청강연 _ JustinaOnumah



초청강연 _ MariaAugustaArruda

KWSE NEWS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소식

March 2022

KWSE NEWS Vol. 83

제29회 정기총회 및 융합워크숍 개최

2021년 12월 9일 (목)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개회사 _ 임효숙 회장



환영사 _ 최환석 부원장(항공우주(연))

12월 9일 목요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제29회 정기총회 및 융합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하이브리드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전·현직 회장을 비롯한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원 약 80여 명이 참석하였다.

식전 행사로 KWSE 회원들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주제의 특강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개회식, 초청강연, 정기총회가 진행되었다. 개회식은 임효숙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최환석 부원장의 축사 및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제5회 평생공로상 및 공로상 시상식 순서로 진행되었다.

KWSE의 발전을 위해 공헌하고 명예를 높인 회원과 비회원에게 수여하는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제5회 평생공로상 및 공로상 수상자는 ▲평생공



공로상 _ 원미숙 교수(동의대학교)



초청강연 _ 윤제용 원장(한국환경연구원)

로상 원미숙 동의대학교 교수 ▲공로상 김영혜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 연구관에게 수여하였다. 원미숙 교수는 KWSE 7대 회장을 역임하면서 부산 울산경남지부 결성 등 KWSE의 권역 확장에 기여하였으며, APNN 발족의 발판을 마련한 공로가 인정되었다. 김영혜 연구관은 KWSE 13대 이사로서 부산울산경남지부 지부장을 역임하며 부산울산경남지역 활동 및 회원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하였다. 올해에는 표창장이 신설되었으며, ▲강현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에 수여하였다. 강현주 책임연구원은 KWSE 13대 이사로서 활동하며 특히 홍보편집위원으로서 탁월한 역할을 발휘하여 본 상을 수상하였다.

이후 윤제용 한국환경연구원 원장의 초청강연이 이어졌다. '2050 탄소중립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대전환'을 주제로 강연한 윤제용 원장은 지금 지구는 기후변화라는 큰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탄소중립 실현을 통해 기후위기를 극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사회의 대전환은 기업 주도, 기술 중심, 시장 견인, 경쟁력 강화, 순환경제가 모두 손발이 맞아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하며 여성과학기술인들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였다.

제29회 정기총회에서는 제28회 정기총회 회의록을 접수하고, 2021년 사업 보고와 지부활동보고가 이어졌다. 의결안건으로는 2021년도 결산 승인과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14대 임원 승인의결과 함께 14대 감사 선출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19로 어려웠던 시기였지만 2년동안 KWSE를 이끌어 나간 13대 임원에게 감사의 뜻으로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KWSE 제29회 정기총회 및 융합워크숍

KWSE NEWS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소식

March 2022

KWSE NEWS Vol. 83

과학탐구교실 우수소감문 시상식 개최

2021년 12월 16일 (목) 유성호텔



멘토링

12월 16일 목요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개최한 2021 여성과학기술인 과학탐구교실 워크숍 및 우수소감문 시상식은 과학탐구교실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과학탐구교실이 나아갈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학생들의 우수 소감문을 시상하여 과학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격려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본 행사에는 대전광역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원 등 40여 명이 참석하였다.

시상식에 앞서 사회를 맡은 유항미 국방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은 "2021 여성과학기술인 과학탐구교실 성과" 발표에서 한 해 동안 진행된 강연 실적과 활동 내용을 공유하였다.

우수소감문 시상식에서는 초등부와 중·고등부로 나누어 대상 2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 장려상 3명, 입선 6명이 수상하였으며, 1명의 과학교사



과학탐구교실 수상자들



초청강연 _ 최은정 박사



초청강연 _ 김현옥 박사

에게 우수지도자상을 수여하였다. 과학탐구교실에 참여한 모든 강연자들에게는 감사장을 수여하였다.

올해 국내 과학기술계 큰 이슈였던 누리호 발사를 기념하여 항공우주를 주제로 최은정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과 김현옥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초청강연을 하였다. 최은정 박사는 '우주 쓰레기가 온다 - 지속 가능한 평화적 우주 활동을 위한 안내'를 주제로 인류가 그간 우주로 쏘아올린 인공위성이 우주에서 쓰레기로 방치될 뿐 아니라 지구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며 머지않은 우주 시대를 살아갈 청소년들이 우주에 대해 다양한 상상력을 펼칠 수 있도록 응원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김현옥 박사는 '지구관측 원격탐사: 인공위성과 함께 떠나는 지구여행 가이드북'을 주제로 우주에 있는 인공위성이 촬영한 이미지를 통해 지구에 있는 우리들이 관측하고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들을 소개하였다. 특히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기후변화 현장을 포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소개하며 청소년들에게 원격탐사의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하는 기회를 함께 제공했다.

강연 후 진행된 멘토링에서는 수상 학생, 학부모, 여성과학기술인이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알차게 꽉 채운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과학탐구교실 워크숍 및 우수소감문 시상식

KWSE NEWS

지부소식

부산울산경남 지부총회 및 융합워크숍 개최

2021년 11월 24일 (수) 아바니센트럴호텔



11월 24일 수요일 부산 아바니센트럴 호텔에서 2021 부산울산경남지역 융합워크숍이 개최되었다. 부울경지역 여성과학기술인과 여대생 40여 명이 함께 한 이번 워크숍은 여성과학기술인과 지역의 공동 발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우새미 박사(부산산업과학혁신원)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참여 확대 방안"을 주제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을 위한 부산시의 노력과 한계, 개선점에 대해 발표하였다. 부산시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지자체가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실행력의 한계가 존재하고, 부산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 내 여성위원이 부족한 이유로 여성 지원자 부족이 꼽히고 있으므로 많은 여성과학기술인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한다고 전하였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이명호 대표(리더십경영연구소)는 "유리천장과 리더십"에 대해 강연하였다. 증자의 돼지, 사마천의 생애, 언나라 명장 악의의일화 등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 리더가 취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에 대한 지혜를 전달하고, 성공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 필요한 관계론을 습득할 수 있는 여러 도서를 추천하였다.

이후 이어진 네트워킹에서는 한 해 동안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활동한 여성과학기술인 네트워크 성과를 참석자들과 공유하며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다짐하며 마무리하였다.

과학탐구교실 강연자 워크숍 개최

2021년 12월 20일 (월) 유성호텔

12월 20일 월요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2021 과학탐구교실 강연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과학탐구교실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사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강연 콘텐츠 개발, 신규 강연자 유입 독려 등 사업 발전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된 이번 강연자 워크숍에는 여성과학기술인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행사는 과학탐구교실에 참여한 강연자 4명의 경험 발표와 참석자 간 자유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김미순 전통연구협동조합 이사는 AI 기술에 대한 청소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강연에서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톨과 프로그램, 웹사이트를 소개하여 다른 강연자들도 강연에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권하였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조혜륜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그동안 참여했던 강연을 소개하며 교육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과학문화에서 소외된 지역을 방문하여 과학에 목마른 학생들을 만난 뜻깊은 경험을 나누었다. 세 번째 발표를 맡은 유향미 국방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과학도서 멘토링을 준비하면서 겪은 경험을 공유하고, 멘토로서 경험한 보람과 만족을 나누며 많은 KWSE 회원들이 본 사업에 참여하기를 적극 권장하였다. 마지막 발표를 맡은 김예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원은 신입 연구원으로서 강연에 참여한 경험을 공유하며 기존 경험자들이 먼저 손내밀어 이끌어주는 것이 새로운 강연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좋은 방법이라고 언급하였다. 이후 이어진 참석자 간 자유토론에서는 온라인 수업에 대비하여 과학탐구교실이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뿐만 아니라, 새로운 강연자를 찾아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KWSE NEWS

2021 제5회 이사회 개최

일자 2021년 11월 26일 금요일

보고안건 2021년 제4회 이사회(확대) 회의록 보고건 / 위원회별 활동보고 / 제14대 회장선거 / 회장단 활동보고

2021년도 중간결산 / BIEN 2021 이월금: 적립금 전환 건 / 의결안건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 /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규정 개정 / 회원인준

논의안건 제5회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공로상 포상

기타논의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제29회 정기총회 개최



2021 자문회의 개최

2021년 11월 15일 (월) 유성호텔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의 발전방향 수립 및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하여 2021년 자문위원회가 11월 15일 월요일 유성호텔 다모아홀에서 개최하였다. 자문위원으로는 오세화 초대·2대 회장, 정광화 3·4대 회장, 이공주 6대 회장, 원미숙 7대 회장, 민병주 8대 회장, 신용현 9대 회장, 부하령 11대 회장, 강문자, 김경숙, 김정선, 신윤숙, 유향숙, 하경자 박사가 참석하였고, 임효숙 회장 외 5명의 임원진이 배석하였다.

이번 자문회의에서는 국제여성과학기술인대회 BIEN 2021 개최 및 결과보고 및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KWSE가 나아갈 방향, KWSE 30주년, 차기 정부에 바라는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에 대해 고견을 나누었다.

2022 제1회 이사회 개최

일자 2022년 1월 27일 목요일

보고안건 2022년 제5회 이사회 회의록 보고건 / 제29회 정기총회 보고 / 14대 분과위원회 활동소개 / 위원회별 활동보고 / 회장단 활동보고

의결안건 2021년도 최종결산 / 제14대 운영위원 선정 / 제14대 자문위원 선정 / 명예회장 추대 / 2022년 정기이사회 개최 / 회원인준


제2회 이사회(확대) 개최 논의 / 세계여성과학인의 날 기부금 모금 / 세계여성과학기술인네트워크 MOU 체결 건 / KWSE 홈페이지: 회장선거시스템 구축 건



KWSE 회원동정

MEMBERS' UPDATES


수상



**국가기술표준원 세계표준의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IEC 1906 AWRD 수상**

김미성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현재 IEC TC 120 환경안전 WG4 컨버너로서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성능 및 안전시험방법에 대한 국제표준을 IEC TC 120에 제안 제정하여 기여 하는 공로와 국내 ESS KS표준과 단체표준 제정 공로로 "세계표준의날" 국제전기기술위원회 (IEC)가 수여하는 "IEC 1906 AWRD" 수상과 표준 유공자 포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향후 국제표준을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등 한국 이 ESS 분야의 국제 표준 시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수상**

설아람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의 홍보 및 확산활동, 국민생활밀착형 연구 수행, 근거기반 보건의료 분야 인력양성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귀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보건의료기술 육성·발전을 위하여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2021년 추계농약과학회 우수 포스터 발표상 /
농촌진흥청 도전과제상 우수상 수상**

전경미
국립농업과학원


국내 농약의 꿀벌 위해성평가 개선을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꿀벌 반야외시험법을 구축하고 보급한 공로로 농업기술대상 도전과제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꿀벌뿐만 아니라 서양뉘영벌, 야생벌 등 다양한 화분매개충을 농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보다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부 제3회 재난안전 연구개발
우수성과 평가회 우수상 수상**

김혜진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연구 현장에서 마주하는 난관과 돌발 상황들에 언제쯤 초연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연구해 왔습니다. 일터와 가정에서 늘 분주하고 실수 많은 제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KWSE 회원님들과 만남을 통해서 동지애를 느꼈고 제 자신을 응원하고 격려 할 수 있었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연구할 수 있도록 심적 버팀목이 되어주신 KWSE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도 여성과학기술인들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12회 여성공학인대상' 연구분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

임현의
한국기계연구원

주목같은 많은 여성공학자들을 대표하여 영예로운 여성공학인대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지금의 우리는 함께하는 이들의 애정과 협력으로 만들어지기에 오늘의 저를 만들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기에 총량의 법칙을 가진 인생은 항상 선택을 하게 만들고, 그 순간의 선택과 책임이 삶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넓게 보고, 길게 보는 현명한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저 또한 그리 호흡하면서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하여 자연과 함께 하는 나노기계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2회 소프트웨어 산업인의 날
SW산업 발전 유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수상**

조영주
조선대학교

2017년 우리 조선대학교가 호남 최초 SW중심대학으로 선정되면서 AI·SW가치 확산을 위해 현재까지 학생들과 즐겁게 소통하며 열심히 뛰었을 뿐인데 오늘의 수상의 영광이 주어져 기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즐기며 제자들과 함께 AI·SW가치 확산을 진행하고 더 나은 교육프로그램 제작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늘 응원해준 가족들과 우리대학 식구들 그리고 늘 곁에서 함께 해 준 멋진 제자들과 함께 이 상의 영광을 나누고 싶습니다.


수상



**제10회 한국유기합성학회
학술상(TCI-SEJIN CI 학술상) 수상**

최선
이화여자대학교

분자모델링 및 약물설계와 유기합성의 계산화학적 연구분야에서 독창적이며 탁월한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등 학문 발전을 선도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10회 한국유기합성학회 학술상(TCI-SEJIN CI 학술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약대를 졸업하고 의약화학으로 Ph.D.를 받은 후 글로벌 신약개발 산업체 현장 경험을 쌓고 대학에서 국내외 연구자들과 다양한 융복합 연구를 하는 동안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과 학생, 연구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2021년도 우수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장관상) 수상**

최은영
한국원자력연구원

2018년부터 원자력연구원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을 해오고 있습니다. 담당관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의 지위향상, 전문성 증진 및 채용촉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이며, 공공 연구기관마다 담당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원들의 일, 생활 양립 제도 활성화 및 타 기관 우수 제도 조사 등 성과를 인정받아 21년 여성과학기술인연차대회에서 우수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후배들이 일과 생활에 균형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사

- 김희정** (강원대학교) - 대한지질학회 41대 학술이사 선출 (2022. 1.)
- 박진아** (한국과학기술원) - 한국과학기술원 ICT석좌교수 임명 (2022. 3. 1. ~ 2025. 2. 28.)
- 이혜정** (덕성여자대학교) - 약학과 교수 이직 (2022. 3. 1.)
- 정수진** (한국한의학연구원) - 한의기술응용센터 센터장 임명 (2022. 2. 21.)
- 조숙경**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 에너지공학부 교수 부임 (2021. 11. 22.)
- 최 선** (이화여자대학교) - 한국생물물리학회 회장 선임 (2022. 1. 1. ~ 2023. 12. 31.)
- 하경자** (부산대학교) - 한국기상학회 제30대 회장 취임 (2022. 1. ~ 2023. 1.)
- 한은미** (전남대학교) -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파실연) 상임대표 취임 (2022. 1. 1. ~ 2023. 12. 31.)
- 황지영** (한국탄소산업진흥원) - 수석연구원 및 연구개발1실 실장 승진 (2022. 2.)

'KWSE 회원가입을 환영합니다.'

※ KWSE 회원은 입회원서 제출 후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이 됩니다.

| | | | |
|--------------------|------------------------|-----------------------|--------------------|
| 구혜영 한국재료연구원 | 김마리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 김명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김행화 국방과학연구소 |
| 김혜정 고려대학교 | 박시은 국방지형정보단 | 배치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백정인 경북대학교 |
| 서민아 한국과학기술원 | 서지연 부산대학교 | 임혜선 건양대학교 | 장민정 동서대학교 |

사무국 소개

| | 최한나 실장 | 김혜선 사원 | 민의정 사원 | 변애란 사원 | 송혜진 사원 |
|--------------|--------------|---|---|--|---|
| 주요 업무 | 업무총괄 | 대외협력 30주년 특별위원회 | 국제 여성과학기술인 단체협력 | 과학문화, 역량강화 사업 | 운영지원, 회원관리 |
| 세부 사업 | - KWSE 운영 총괄 | - 연구 분야별 학술행사 - 공동연구 인력교류 - 홍보 (소식지, 웹메일 등) - 30주년 특별위원회 | - YWS Camp & Smart Sister Program - 국제 여성과학기술인 DB - 재외 한인 여과기인 교류 (UKC, CKC, 웨비나) - 국제 여성과학기술인 정책 및 해외단체협력 (INWES, APNN) | - 과학탐구교실 - 지부 활동지원 - 여성과학기술인 활동 지원 - 국내 여과기인 정책지원 | - 회계, 재무 및 KWSE 사무행정 - 회원관리 및 자문위원회 - 홈페이지 관리 |